



보도 일시	2022. 3. 4.(금) 09:00	배포 일시	2022. 3. 4.(금) 08:00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책임자	과 장 이재천 (044-201-1851)
		담당자	사무관 강창엽 (044-201-1857)

노지 월동작물 가뭄지역 13개 시·군 급수대책 추진

- 농가 급수 요청 2,607ha 중 1,965ha에 용수 공급 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가뭄으로 마늘, 양파 등 노지 월동작물의 생육 부진이 우려되는 13개 시·군에서 용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2개월간('21.1.4.~'22.3.3.) 전국 평균 강수량은 8.2mm로 평년 강수량 64.9mm의 13% 수준이고, 3월은 월동작물의 본격적인 성장기인데 적은 강수가 지속되고 있어 마늘, 양파 등 노지에 재배하는 월동작물의 생육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1일 전남, 경남, 경북에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 예산(이하 가뭄대책비)을 각각 5억 원씩 선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노지 월동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남부지방 중 농가의 급수 요청이 있는 전남, 대구·경북, 경남 지역 13개 시·군이며,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가뭄대책비를 활용하여 용수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을 활용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3월 3일까지 13개 시·군에서 농가가 급수 지원을 요청한 면적 2,607ha 중 창녕군, 의성군, 고령군, 해남군 등 1,965ha에 우선 용수를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642ha는 기상 및 생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가가 요청한 급수시기에 순차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천 농업기반과장은 “시·군에서 강수 부족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급수차 지원, 물뺄 설치, 관정 개발 등 급수대책 추가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라며,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서는 해당 시·군에 적극적으로 급수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지역별 급수대책 추진현황



붙임	지역별 급수대책 추진현황
-----------	----------------------

- (3.3.기준) 남부지방 4개 시·도, 13개 시·군에 농가 요청에 따라 급수대책이 필요한 2,607ha 중 1,965ha에 저수지·양수장 등을 활용 급수 조치

지역		급수요청 면적(ha, A)	급수실적(ha, B)	B/A(%)
합계		2,607	1,965	75.4
전남	계	243	170	70.0
	나주	97	24	24.7
	해남	140	140	100.0
	강진	6	6	100.0
대구· 경북	계	579	225	38.9
	의성	400	46	11.5
	고령	154	154	100.0
	달성	25	25	100.0
경남	계	1,785	1,570	88.0
	창녕	1,037	822	79.3
	남해	446	446	100.0
	창원	95	95	100.0
	진주	7	7	100.0
	함양	75	75	100.0
	합천	115	115	100.0
	산청	10	10	100.0

* 미급수면적 : 강수량·생육상황 등 고려, 농가와 협의하여 급수시기 결정